

기혼남녀의 용서와 관련변인 연구

- 용서과정을 중심으로 -

서 신 화(상명대학교 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석사)

최 연 실(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용서(Forgiveness)와 용서과정(Forgiveness process) 경향을 살펴보고, 용서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기혼남녀의 용서에 관련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중요 변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서를 과정모형관점으로 바라보는 본 연구에서는 용서과정을 반드시 용서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선행되는 특성이 있기에, 한 개인에게 오래도록 잊혀 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단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처를 남기는 문제, 문제발생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소재를 용서과정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성별, 연령과 결혼년수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최인숙, 2005),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부관계 안에서 상처를 남기는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기혼남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척도로 박종호(2006)가 타당화 작업을 거친 EFI-K(Enright Forgiveness Inventory-K)를 사용하였고, 검사지 내에 포함된 기초배경 질문지를 바탕으로 김지현(2007)이 구성한 용서관련 설문문항과 선행연구(김광수, 2002a; 배준성, 2006; 오영희, 2005)에서 용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변인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용서과정에 적절한 문항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기혼남성 92명과 기혼여성 108명이며, 분석 방법에는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t-test), 교차분석(χ^2 검정),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는 모두 공통적으로 '이해/포용/공감하기'와 '친밀감/신뢰감의 회복'을 용서개념으로 높게 인식한다. 다음으로, 남성에게는 '이해/공감의 정도', '신뢰/친밀감의 정도', '개인의 인간성'이 용서에 도움을 주며, 여성에게는 상대방의 '변화노력/행동', '반성/사과의 표현', '이해/공감의 정도'가 용서에 도움을 준다.

둘째, 기혼남녀 모두 부부관계에서 상처를 남기는 문제는 가족관계이고, 용서과정변인에서 남녀의 경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남녀 모두에게 문제가 처음 발생한 시기는 결혼 후 3년 이내이며, 이를 통해 많은 부부들이 결혼 초기에 상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초기에 부부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향상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문제발생시기가 이르고 문제로 인해 고민한 기간이 더 길다. 이는 여성이 문제에 의도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의 심각성이나 상처를 받는 깊이, 상처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정도도 깊다는 결과와 연관 된다. '상처의 부당성'에 대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남성은 '문제발생의 책임소재'를 나 자신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 두는 반면, 여성은 상처를 준 사람과 그 당시의 상황에 둔다.

셋째, 남성의 용서수준이 정서적 용서, 인지적 용서, 행동적 용서의 모두에서 더 높고, 그 중에서도 인지적 용서에서 남녀 차이가 가장 크며,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 남성의 정서적 용서는 '상처의 부당함 정도'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에 영향을 받고, 여성의 정서적 용서는 '결혼년수'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그리고 '학력'에 영향을 받는다. 남성의 인지적 용서는 '상처받은 정도'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에 영향을 받고, 여성의 인지적 용서는 '결혼년수'와 '학력'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행동적 용서는 '상처의 부당함 정도'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은 '결혼년수'와 '나 자신 책임소재'에 영향을 받는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성에게는 사회인구학적 특징보다 용서과정 변인이 더 큰 영향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함 정도의 영향력이 크고, 여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결혼년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용서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기혼남녀의 용서경향과 용서과정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기혼남녀가 인식하고 있는 용서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경향성에 남녀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기혼남녀의 용서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성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히 남녀간의 차이점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